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5월 5일(금)
---(음력 3월 16일)---
Пятница
5 мая 2023г.
№ 17 (1203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9일은 전승절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펼쳐진 '불멸의 연대'(2019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올해 사할린 주 230대의 최신 버스를 받는다

대중교통의 대대적인 개편이 유즈노사할린스크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125대의 친환경 버스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5대의 친환경 버스가 지방 중심부에서 운행할 것이다. 교외 노선에는 54대의 최신 차량이, 시외 노선에는 26대의 최신 차량이 추가로 운행된다.

섬지역은 이미 43대의 버스를 받았다. 현재 와니노 항구에는 운송 선박에 선적할 버스 18대가 더 있다. 나머지 운송편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사할린에 도착하여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모든 버스는 감시 카메라, 에어컨, 승객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요건 등 최신 표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시내버스는 민스크 "MAZ" 차량 공장에서, 시외버스는 중국의 Yotong 차량 공장에서 조립됐다.

주지사, 도네츠크 박해국에서 사할린 군인들에게 상을 수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동안 동부 군사구역의 신임 육군군단사령관 위탈리 포들레스니 소장을 만났다. 많은 군인들이 국가 표창을 받았으며 주지사는 드론, UAZ 패트리엇 지프 및 기타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군인들에게 전달했다.

샤흐초르스크에 주지사는 사할린 필하모닉과 체호브 센터의 아티스트들이 참전용사들을 위해 마련한 콘서트에 참석했다. 또한 주지사는 현재 사할린 전문가들이 재건 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스포츠 단지를 시찰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할린 측에서 이번에 샤흐초르스크의 아동 유도 학교에 유니폼과 유도 및 삼보 용 스포츠 장비도 전달했다.

사할린 앙상블, 제22회 청년 델픽게임에서 특별상 수상

극동 지역의 젊은이들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사라토프에서 열린 제22회 청년 델픽게임에 참가했다. 사할린 예술 전문학교는 사할린 지역을 대표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민속 앙상블 "하얀 이슬"(단장 엘레나 알레쉬코)은 애국을 주제로 하는 설득력있는 공연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앙상블 민속 노래"부분).

제22회 러시아 청년 델픽게임에 러시아 연방 80지역 대표단의 총 2,516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나이는 10세에서 25세이다. 2022년 11월부터 각 지역에서는 소셜델픽게임과 선발전을 개최하여 대표팀이 선정되었다. 100명 이상의 저명한 문화, 교육 및 과학계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모든 후보자를 심사했다.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과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전승절은 위대한 명절입니다. 78년 전, 1945년 5월 9일 우리 러시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종식된 기쁨을 기뻐함과 동시에 찬란하고 신성한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애도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며, 밤에 자녀들에게 입을 맞추고, 손주들을 어르는, 이렇게 소중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들께서 소중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수호했고, 삶을 위한 후손들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항상 우리 곁에 남아있는 오랜된 사진 속 붉은 적위대의 젊은 장병들은 엄격하고도 친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치있게 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전장에서 전사한 사람들과 포로수용소에서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방 노동전선에 계셨던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장에서 돌아오신 참전용사들과 봉고된 도시와 마을을 복구하신 원로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수호를 위해 분연히 대항했던 항도 주민들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승리는 다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병들의 혈관 속에는 1945년 승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전용사들과 후방 노동전선의 참전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날을 축하드리며, 강건함과 행복과 가정의 번영과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주민 여러분, 승리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어버이날 인사말 존경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 하여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한국의 5월 8일 어버이날은 아버지의 은혜에 감가고 기뻐하는 날로, 우리 모두의 부모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게 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슬픔과 즐거움 모두를 함께해 주셨으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지난날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함께한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곳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께서도 어려웠던 지난 세월을 현명하게 잘 살아오셨으며 평생을 자식 걱정과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맞이하여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할린 동포사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이웃이 되시기를 바라며 사할린과 한국에 거주하시는 사할린 한인 동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출장소장 박상태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 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5월 9일은 전승기념일

2011년에 모스크바에서 출간된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고려인들>이란 책(저자: 신 드미트리, 박 보리스, 최 발렌틴)에는 위대한 조국전쟁 고려인 참전자 372명에 대한 정보(사료, 회고록, 신문기사 등)가 반영되었다. 책에 참전자 372명이 소개되었지만 실제로 고려인참전자는 더 많았다.

5월 9일 대조국전쟁 전승기념일을 맞아 본사는 이 책에 게재된 자료 일부를 소개한다. 이번에 전쟁에 참여한 여성 고려인을 소개하기로 했다.

본사 편집부

위대한 조국전쟁 참전 영웅들을 기리며

나치 독일과의 전쟁 초기부터 소련의 고려인들은 나치라는 전염병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애국심을 보여주었다. 중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고려인들은 전선으로 보내 달라고 시와 구의 병적 등록 및 입영 사무소에 지원하였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최악의 적이었던 일본 군국주의 스파이 혐의로 1937년 정착해 살던 국경 지역에서 중앙 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된 소련 고려인들은 무기를 들고 조국을 지킬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소련 고려인은 전선에 나갈 수 없다는 고려인 민족 전체를 모욕하는 낙인이 고려인들 스스로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려인들은 후방과 노동 전선에서만 위대한 조국 전쟁에 참여했고, 전선에 투입된 경우는 예외 적이어서 그중 소수에 불과했다.

고려인 추방과 함께 1920~30년대 대조국전쟁 발발 훨씬 전부터 소

련 및 당 기관의 추천으로 군사학교에 입학했거나 붉은 군대에 징집된 고려인 장교와 병사에 대한 탄압도 시작되었다. 러시아 연구자 송 잔나의 "소련의 정치적 억압으로 인한 고려인 희생자 (1934-1938)"라는 출판물을 근거로 볼 때 1931-1938년 소련에서 145명의 고려인 장교들과 붉은군대 병사들이 억압당했다. 또한 1938년 6월 24일 국방인민위원회는 폴란드인, 독일인, 루마니아인, 고려인, 라트비아인, 리투아니아인, 에스토니아인 등 신뢰할 수 없는 민족 출신 장교들을 붉은 군대에서 해임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복권되었다.

고려인 참전자 중에서 19명은 고등 군사 교육을 받고 전투 경험도 있는 직업 군인이었다. 군 간부들은 대부분 중상을 입거나 전사하는 등 최전선에서 뛰어난 영웅심을 발휘했다.

전선에 나간 대다수 고려인들은

군대에 징집되어 전선으로 보내진 젊은이들이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위대한 조국 전쟁에 참여한 고려인 여성들의 활약이다.

1927년생인 안 안나 필리포브나는 1941년 7월 오르드조니키드제에서 참호를 팠다. 1942년에는 그녀가 로스토브나도누, 하르코브 등지의 최전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1918년 치타에서 태어난 리디아 페트로브나 구다예와-김은 하사관으로 서기직을 맡았다.

조선의 유명한 정치인 이 블라디미르 세르게예비치(이위종 - 20세기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조선 공사 이범진의 아들)의 딸인 예피모와 논나 블라디미로브나는 1940년에 레닌그라드 철도 엔지니어대학에 입학했다. 전쟁 초기부터 레닌그라드의 여러 방위 공장에서 일하며 도시 방벽 건설에 참여했다. 1942년 그녀는 레닌그라드에서 대피했다.

레닌그라드 주립 에스트라다 아티스트 김 알라 이와노브나는 최전방 양상블 일원으로 클라브지아 술젠코(유명 가수)와 함께 공연을 했다. 전쟁 첫해에 이 양상블은 500회의 콘서트를 열었다.

1918년생인 김 아나스타샤 이와노브나는 최전방 대공 부대에서 복무했다.

1941년부터 1942년까지 포위된 도시 레닌그라드에 거주했던 김 안토니나 바실리에브나는 아사했다.

김 엘레나 프로코피예브나는 제3 근위 탱크 군 병원 외과 간호사이자 의료 담당 상사였다.

류가이(류) 예브게니야 니콜라예브나는 대피소의 간호사로 근무했다.

니(이) 알렌티나 니콜라예브나는 1941년 7월 모스크바에서 전선에 자원했다. 그녀는 인민 의용군 제1사단 소속이었다. 세브스코-바르샤브스카야 제60소총사단 제491의료위생 대대 간호사이자 의무상사였다. 모

스크바 방어, 쿠르스크 전투, 바르샤바 해방, 베를린 점령, 프라하 해방 등에 참여했다.

1919년에 태어난 신 소피아는 소련-핀란드 전쟁에 참전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카렐리안-핀란드 국경지구의 내무인민위원회 국경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했다.

한 갈리나 안드레예브나는 레닌그라드에 있는 대피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했다.

한-피미나 알렌티나 안드레예브나는 의료 하사관으로 포위된 레닌그라드 방어에 참여했다.

전쟁에 참여한 고려인 여성들은 소련 통치 하에서 태어난 고려인 1세대 출신이다. 그들은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의 참화를 회상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고려인들>에서 발췌)

이 모 저 모

모스크바에서 열린 사할린 전시, 북부 여성에게 헌정돼

지난 4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제8회"북방의 보물, 러시아의 거장과 예술가"국제 박람회 개막식이 열렸다. 이는 민족 공동체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대규모 행사로, 국가 경제 성과 전시회에서 열린다. 전국 25개 지역에서 온 5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러시아 - 나의 역사" 전시관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소개했다고 "사할린 에너지"의 보도부에서 밝혔다.

사할린 대표단은 거의 모든 '북방의 보물' 분야에서 작품들을 준비하였다. 올해 "사할린, 전통, 조화, 미래"전시는 북방 여성에게 바쳤다. 바로 여성이 민족 정신의 보존과 전통의 계승과 후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데 대해 책임진다.

사할린 부스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여러 테마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장인들이 물고기 가죽, 비즈, 모피 등을 이용해 기념품 및 장식 예술품을 만들고, 음악 빔 연주와 전통 요리 시식회 등 창의적인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다. 올해 대표단에는 오하 구역의 네크라소브카 마을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성 가족 왕조가 포함되어 있어 세대 간의 유대와 청소년들에게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보여줌을 가장 잘 반영했다.

사할린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처음으로 생활용품 및 공예품 등을 이용해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고유민족 문화를 더 가깝고 흥미롭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Экспозицию Сахалина на выставке в Москве посвятили женщине-северянке

28 апреля в Москве открылась XVI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Мастера и художники России». Традиционное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едставляющее культурное богатство этнических сообществ, проходит на площадке ВДНХ. В павильон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о своих традициях расскажут более 500 участников из 25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есть что показать практически в каждом конкурс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окровищ Севера». В этом году экспозиция «Сахалин. Традиции. Гармония. Будущее» посвящена женщине-северянке. Именно она отвечает за сохранение духовности народа,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традиций, передачу их по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Сахалинский стенд состоит из нескольких темати-

ческих секций с интерактивными зонами. Здесь мастерицы проводят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сувениров из рыбьей кожи, бисера и меха, изделий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гре на музыкальном бревне, дегуст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женские семейные династии из Некрасовк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то как нельзя лучше отражает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и передачу молодежи традиционных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Впервые посет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тенда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вирту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предметов быта и изделий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ехнологий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Такой креативный подход позволяет популяризировать культуру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реди современной молодежи, для которой она становится ближе, интереснее и доступнее.

"Сахалин лайонз" щел매 하키팀, 소치 대회 우승

"Сахалин лайонз" щел매 하키팀이 소치에서 열린 제 5회 러시아 전국 적응형 아이스하키 축제에서 하키패밀리 페스트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사할린 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선수들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승을 차지한 결승전에서는 오렌부르크의 "야스트레브"팀과 맞붙어 3-0으로 "사할린 라이온즈"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팀 코치는 사할린 선수들은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뛰었으며 팀워크와 기술적 능력, 그리고 엄청난 의지력을 보여 주었다고 칭찬했다.

Команда по следж-хоккею «Сахалинские льявта» победила на турнире в Сочи

Команда по следж-хоккею «Сахалинские льявта»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о II дивизионе V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адаптивного хоккея «Hockey Family Fest» в Соч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ортсмены сыграли четыре матча и во всех победили. В матче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Сахалинские льявта» встречались с «Ястребом» из Оренбурга и стали безусловным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 счетом 3:0.

Тренер команды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цы выложились на турнире на полную, и показали чудеса мастерства и умения работать в команде, а также огромную силу воли.

사할린 인형극단의 소장품 전시회

사할린 인형극단 소장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할린 섬체호브책 도서미술박물관에서 펼쳐진 "저기, 구

름 너머 높이..."전시회에서 동화 속에 빠져든 듯 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할린 인형극장의 "로미오와 줄리엣", "어린 왕자", "드라쿨라" 등의 현재 또는 역사적 공연에서 사용된 인형 100여 점이 전시되었다고 '사할린 섬 체호브책 도서미술 박물관의 홍보실이 전했다.

"체호브책 박물관과 인형극단이 함께 멋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예상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인형들을 배치하고, 조명하는 이런 전시회가 전혀 새로운 시도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더 많이 돌아다니며 인형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의미를 파악하고 싶습니다."라고 사할린주 문화기록보존부 장관 노나 라브리크가 말했다.

사할린 인형극장 소장품 전시회 "저기, 구름너머 높이..."는 6월 12일까지 열린다.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주 문화기록보존부의 지원을 받아 도서박물관 및 인형극장과 협력하여 조직되었다.

Выставка из коллекц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откры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астоящую сказку погрузились гости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из коллекц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Там, высоко за облаками...»! Мир чудес и добра развернулся в музее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 зале поселились более 100 кукол из действующи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спектаклей театра: «Ромео и Джульетта», «Маленький принц», «Дракула»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чень рада, что музей книги и театр кукол сделали такой замечательный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То, что я увидела, превзошло все мои ожидания. Прекрасные куклы, расстановка, подсветка. Эта подача не новая вообще, но новая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Хочется походить ещё, рассмотреть каждую куклу, осмыслить»,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Выставка «Там, высоко за облаками...» из коллекц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открыта до 12 июня. Проект организован в партнерстве музея книги А.П.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и театра кукол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주민, 사기꾼에게 거의 백만 루블리를 이체

포로나이스크의 한 주민이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꾼들은 이 남성에게 그의 이름으로 대출이 되었고 이 대출금을 승인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하도록 설득했다.

(8면에 계속)

5월 9일은 전승기념일

아래 니(이) 왈렌티나 니콜라예브나 간호사에 대한 엔. 가리폴리나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게재한다.

민병대 간호사

...왈렌티나 니콜라예브나 나는 극동 지역 포시에트 지구 크라베 마을의 한의사 후손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내전 때에 연해주에서 파르티잔으로 활동했고 파르티잔 소대와 함께 블라고웨센스크까지 갔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몇 년 후 또 다른 가정을 꾸렸다. 그래서 전 부인인 타치야나 막시모브나는 9명의 자녀를 혼자서 키워야 했다. 1931년 봄, 그녀는 왈라와 함께 왈라의 언니와 오빠가 공부하고 있는 모스크바로 긴 여정을 떠났다. 이들은 제2의 대의 기숙사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왈라는 모스크바 사람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고, 그 후 전쟁이 일어났고...

1. <1940년에 백핀란드와의 전쟁이 끝난 후 콥소몰(전연방 레닌주의 청년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위원회는 우리 콥소몰 회원들에게 한 가지 군사 전문 분야를 숙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대학(그가 공부하는 대학은 오르조니키드제 명칭 모스크바엔지니어경제대학 - 편집부 주.)에는 무전, 운전, 간호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1학년 을 마친 후 나는 레포르토보 병원의 간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41년 5월 10일에 간호사 수료증을 받았고, 6월 22일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몰로토프의 연설을 들었을 때 나는 전쟁에 필요한 전문 기술이 있으니 전선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지원했지만 오빠는 바우만 민병대에 남았습니다. 나는 레닌스키 지역에 의료 부대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스크바 민병대 1사단에 입대했는데, 모두가 자원 봉사자였습니다. 이렇게 1941년 6월부터 1945년 6월 까지 이 사단에 소속되어 모스크바에

서 베를린, 엘바까지 행군했습니다.> 라고 니 선생이 말하였다.

"그곳은 세브스크 시 부근 쿠르스크였습니다."라고 그녀는 그곳이 어 뻤는지 말해달라는 나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다. "해방 이후 우리 사단은 '세브스카야'로 명명되었습니다."

"우리 의무대대는 최전선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는 적의 사격 사정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실에는 부상당한 사람이 수술대에 누워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하는 중에도 우르릉 거리는 굉음이 들리면 포탄이 그냥 빗나갈지 아니면 우리를 덮칠 지 추측만 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소리만 듣고 포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 무서웠나요?

- 부상자가 많았고 최전선에서 부상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어느 하루 우리 부대가 와실리에비치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그곳에 여러 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집에 우리 의료대대가 자리잡았습니다. 후퇴하던 우리 부대는 마을 한 쪽 끝으로 갔고 독일군은 다른 쪽에서 전진하고 있어서 우리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있어서 수술이 진행 중이라 이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의료대대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독일군이 엔진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엔진을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자 햇 불을 붙여 수술을 계속 진행했지요.

운전기사가 트럭을 집 근처로 가져 왔습니다. 수술을 마치자마자 부상자들을 싣고 우리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독일군이 곧 그곳에 도착하기 때문입

니다. 수술은 복부 수술이었기 때문에 복부를 꿰매지 않으면 부상당한 사람을 옮길 수 없었거든요. 최대한 빨리 수술을 마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마지막 한 땀을 꿰매고 나서 병사를 들것에 싣고 차에 들어 올리고 우리도 빨리 차에 올라 마을 반대편, 우리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카튜샤 로켓이 독일군을 공격하는 것을 처음 목격하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군대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상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2~3 일 동안 전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전투에 참여한 공로로 용맹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왈렌티나 니콜라예브나는 "전쟁에서 가장 불쾌한 것은 포위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폴란드 비트키체에 오랫동안 주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3 일 동안 포위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렸죠. 우리 연대는 타룬즈 작전에 나갔고 참모장과 대대장은 사단 본부로 갔으며 당시 의무대대는 독일군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버텼습니다. 그리고 의료대대 지휘관도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모두가 그가 의무대대와 함께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제1283 소총 연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은 계속 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길은 제방 쪽으로 뻗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독일군이 있었습니다. 펌프에서 물을 끌어오려면 제방으로 나가야 했고, 제방은 계속해서 폭격을 받았습니다. 저격수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는 마당을 떠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어둠이 깔린 강가로 달려가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 붉은 별 훈장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건가요? - 나는 그녀에게 계속 질문했다.

베를린에서의 일로 받았다고 그녀는 당연한 일인듯 말했다. "우리 의무대대는 사단과 함께 계속 행진했습니다." 바르샤바의 해방을 기념하여 부대에 바르샤바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한 연대는 프라하 연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포병 사단은 프라하 사단이라고도 불립니다.

- 왈렌티나 니콜라예브나, 여성은 전쟁을 이겨내기 아주 힘들 겠죠?

- 남성에게도 어렵지만 여성에게는 두 배, 세 배는 더 어렵습니다. 툴라주에서 오를주로 처음 이송되었을 때는 20일 동안 350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11킬로미터씩 걸었습니다.

이곳은 2월이면 눈보라가 도로를 휩쓸어 도로인지 눈더미인지 구분할 수 없는 러시아 중부의 산림 대초원 지역입니다. 나중에는 눈이 1미터도 넘게 쌓였고 바람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포병단이 우리 앞에서 가서 우리는 포병들을 따라갔습니다. 위장을 위해 밤에는 걸어가 고 낮에는 빈집에서 휴식을 취했습

니 왈렌티나 니콜라예브나. 1920년 4월 9일 연해주에서 태어났고 1931년부터 모스크바에서 거주. 1941년 7월부터 1945년 6월 까지 자원 민병대 간호사. 2급 대조국전쟁 훈장(1985), 붉은 별 훈장(1945년, 베를린 전투), «용감으로»메달(1944), «군사 공로로»메달(1943),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메달, "바르샤바 해방" 메달, "베를린 점령"메달, 그리고 총사령관 표창 7개 보유.

1948년에 모스크바 엔지니어경제대학을 마친 후 대학원 준박사과정을 졸업. 기술학 준박사(1953). 35년간 전국(소련)건설경제연구소에서 근무.

2008년 3월 8일 별세.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고려인들>에서 발췌)

니다. 반경 25km 이내의 주민들은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 왈렌티나 니콜라예브나, 스스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했다.

- 네, 저는 행운의 별 아래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린 시절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스탈린 장학금을 받았으며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논문을 쓰고 기술학 준박사를 따냈습니다. 저 같은 참전자들은 매우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제게 맡겨지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소련과학건설경제연구소로 파견되어 30여년 근무했습니다.

제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료대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아이들에게 흥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지, 2000년 12호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재외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재외동포 관련 법이 있었지만, 이들 법이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재외동포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은 외교통일위원회가 전혜철 의원(2020년 11월 3일), 안민석 의원(2020년 11월 12일), 김석기 의원(2021년 9월 24일)이 각각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심사해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외통위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외통위는 대안 제안 이유로 "세계 각지에 73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

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제1조 목적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정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

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사업 등을 시행한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재외동포신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강제동원 관련 유물 공개 구입

(부산=연합뉴스) 손영주 기자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강제동원 관련 자료와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 구입 대상은 근현대 시기 일제강제동원, 강제동원과 관련된 항일운동, 위생감염병·예방접종 등 관련 자료다.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사할린, 동남아시아·중서부태평양 지역 강제동원 자료와 일본군 '위안부'·근로정신대 관련 자료 등이 대상이다.

대왕산 죽창의거·조선인 토공 민족주의그룹 사건 등 강제동원 조선인의 노동쟁의 관련 자료도 수집한다.

2016년에 개관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지금까지 공개 구입한 유물은 1천 292점에 달한다.

유물 구입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우편과 방문으로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9 мая – День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Ни 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Родилась 9 апреля 1920 г. в д. Краббэ Янчихинской волости Никольск-Уссурийского уезда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семье тибетских врачей. Училась в одной школе вместе с будущим директо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М.Н. Паком.

С 1931 г. в Москв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168-й средней школы поступила в Московский инженер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им. С. Орджоникидзе. В 1941 г. окончила Роковские курсы медсестер при Лефортовском госпитале г. Москвы.

Ушла на фронт добровольцем. Призвана в ряды РККА 21 июля 1941 г. Ленинским РВК г. Москвы. Находилась в

составе 1-й Добровольной дивизии народного ополчения.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медицинской службы. Медсестра 491 медсанбата 60 стрелковой Севско-Варшавско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ордена Суворова дивизии.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обороне Москвы, битве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освобождении Варшавы, взятии Берлина, освобождении Праги. Дважды находилась в окружении. Дважды легко ранена. Во время войны перенесла тиф.

Награждена орденам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I ст. (1985), Красной Звезды (1945) за взятие Берлина, медалями «За отвагу» (1944) за битву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За боевые заслуги» (1943), «За оборону Москвы»,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Варшавы», «За взятие Берлина». Имеет

7 благодарностей Верховного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го.

Демобилизована в июне 1945 г. В Москву приехала в числе первых фронтовых составов на Белорусский вокзал.

Член ВКП(б) с января 1943 г. Член ВЛКСМ с 1936 г. Член МОПР с 1937 г.

В 1948 г. окончила Московский инженер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Кандидат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1953). С 1953 г. по 1988 г. работала во Всесоюзно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институте экономи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и Госстрое СССР.

Вела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ветеран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четный член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60-й дивизии.

Умерла 8 марта 2008 г. Похоронена на Хованском кладбище г. Москвы.

Сестричка из народного ополчения

Мы сидим в ее уютной квартире в Ясеневе, она показывает фотографии, на которых запечатлены юная Валя Ни — медсестричка из дивизии народного ополчения Ленинского района Москвы и ее фронтовые друзья, и все вспоминает и вспоминает. Иногда — с улыбкой, а когда говорит о гибели дорогих ей людей, голос ее вдруг начинает прерываться, и она замолкает.

— Я смотрю: сейчас, в чеченской войне, четыре солдата несут одни носилки. А мы, девчонки, вдвоем несли. Вдвоем! А если раненый рослый или ему на передовой уже наложили шину Дитрикса, то он не помещался на носилках, и тогда мы несли его втроем: одна сзади держала ноги, другая — носилки, третья несли их спереди. Сначала я работала в перевязочной, а потом меня перевели в шокую палату, объяснив, что там нужен человек спокойный, мягкий, относящийся к раненым с пониманием. Его прежде надо вывести из шока, а уже потом передать в перевязочную или операционную. И я перешла в шокую палату. Какие раненые ко мне попадали! Между жизнью и смертью. Но они не осознавали этого. Я должна была помочь им выкарабкаться.

Родилась 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Ни в семье потомственных тибетских врачей в деревне Краббэ Посьетского райо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Отец во врем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партизанил в Приморье и дошел со своим отрядом до города Благовещенска. Вернувшись с войны,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завел другую семью, так что прежней его жене Татьяне Максимовне пришлось самой поднимать на ноги девятилетних детей. Весной 1931 года она вместе с Валей отправилась в долгое путешествие через всю страну — в Москву, где учились старшие сестра и брат Вали. Поселили их в студенческом общежитии 2-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Так Валя стала москвичкой. Окончила школу, поступила в институт, а потом — война...

— В 1940 году после войны с белофиннами ЦК ВЛКСМ обратился к нам, комсомольцам, чтобы каждый овладел одной военной специальностью. У нас в институте (Московский инженер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им. С. Орджоникидзе)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кружки радистов, шоферов и медсестер. После первого курса я поступила в школу медсестер при Лефортовском госпитале. 10 мая сорок первого года получила диплом медсестры, а 22 июня началась война. Услышав выступление



В.Н. Ни с боевой подругой Н.П. Кедровой 491 медико-санитарный батальон 60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1941 г.

Молотова, я подумала: у меня есть специальность военная, я должна быть на фронте.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я подала заявление вместе с братом, но он остался в Бауманском ополчении, а я попала в Ленинский район, потому что там формировалось медицинск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я попала в первую дивизию народного ополчения города Москвы, она вся состояла из добровольцев. С этой дивизией с июня сорок первого по июнь сорок пятого я прошла от Москвы до Берлина, до Эльбы.

— Это было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под городом Севском, — откликается она на мою просьбу рассказать, как это было. — За его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ша дивизия потом получила наименование Севской.

— Наш медсанбат располагался примерно в трех километрах от передовой. Мы находились в радиусе действия вражеских огневых точек. Обстрел шел непрерывно. В операционной палатке на столе лежит раненый, идет операция, мы делаем свое дело, а тут вдруг вой, гул, и мы гадаем: пролетит снаряд мимо или накроет нас. Мы уже даже по звуку стали определять, где он упадет.

— Было страшно?
— Бояться было некогда — раненых оказалось много, их без конца доставляли с передовой. Однажды наша дивизия заняла деревню Васильевичи, если мне не изменяет память. Там сохранилось несколько домов, и в одном из них располагался медсанбат.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наши, отступая, ушли на один конец деревни, на другом наступали немцы, а мы оказались посередине. Медсанбат не мог уйти вместе с нашими бойцами, потому что на столе лежал

батом. С нами находился 1283-й стрелковый полк. Раненые все время просили пить, а воды не было. Мы прятались в доме. Улица тянулась к набережной, а на той стороне — немцы. Чтобы набрать воды из колонки, надо было выйти к набережной, а она почти непрерывно обстреливалась. До наступления темноты нельзя было выйти и из двора, его на прицеле держали снайперы. Приходилось ждать вечера, чтобы почти непрерывно обстреливалась. До наступления темноты сбежать к реке и принести воды.

— А орден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за что получили? — пытаю я ее.

— За Берлин, — говорит она как о чем-то само собой разумеющемся. — Наш медсанбат все время шел вместе с дивизией. Она получила еще одно наименование — Варшавская —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Варшавы. А один полк называется Пражским. Артиллерийский дивизион тоже называется Пражским.

— 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женщине очень трудно на войне?

— Трудно и мужикам, а женщинам — вдвойне и втройне. Когда первый раз нас перебрасывали из Т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рловскую, мы прошли 350 километров за двадцать дней. В первые дни проходили по 11 километров.

Это лесостепные районы средней полосы России, в феврале здесь особенно сильно метут метели, заметают дороги, не различишь — дорога это или наносы. Последние доходили до метра высотой и были утрамбованы ветрами. Перед нами прошла артиллерия, а мы — за нею. Для маскировки шли ночами, а днем отдыхали в пустых домах: в радиусе 25 километров население было эвакуировано. И вот иду я однажды, а сама сплю на ходу и вижу сон: будто бы впереди два дома кирпичных, вот как сейчас помню, ярко освещенных.

«Почему же они демаскируются? Значит, уже можно, не таясь, зажигать свет!» — обрадовалась я. Потом решила, что в первый дом не пойду, загляну во второй. Вроде бы поднимаюсь по ступенькам во второй — и вдруг лечу в тартарары!

Оказывается, задремав, я провалилась в колею прошедшей перед нами артиллерии, и меня пришлось вытаскивать чуть ли не из ямы. Надо было идти по ночам, а мы не привыкли к долгим переходам. Для меня самое страшное на войне — переходы и смерть. От Москвы до Берлина в основном пешком прошли.

— А с того света возвращать бойцов доводилось?

— Случалось. А другой раз,

как ни бились, все наши труды пропадали даром. Мы даже свою кровь сдавали и тут же вливали ее раненым. У нас была Ася Тарасова, она очень часто сдавала кровь. И вот однажды у нее взяли 400 граммов, и только перелили ее раненому, как он умер. Мы сидели и плакали, а Ася причитала: мало того, что паренек умер, так еще и ее кровь пропала.

— 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вы считаете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 человеком? — спросила я ее напоследок.

— Да. Считаю, что родилась под счастливой звездой, но детство было омрачено тем, что у меня не было отца. Я окончила среднюю школу, институт, два года получала Сталинскую стипендию, меня оставили в аспирантуре, я защитила диссертацию, мне присвоили звание кандидата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К нам, фронтовикам, очень хорошо относились. За что бы мне ни приходилось браться, все у меня получалось складно. Меня направили во Всесоюзны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де проработала более 30 лет.

У меня двое детей. Наверное, своими рассказами о нашем медсанбате я увлекла детей — оба, сын и дочь, окончили медиц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Александр кандидат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Наталья — дерматолог. А мой муж, Цой Семен Борисович, умер в 1984 году.

Дети у меня хорошие. Недавно устроили мне праздник в связи с моим 80-летием. Дочь сказала: «У корейцев принято, что год ребенку справляют родители, а 60 лет — их собственные дети. Но поскольку мы у мамы поздние дети, то в 60 лет ничего не смогли ей устроить. А сейчас мы с братом решили отпраздновать мамину 80-летие». Я пригласила пятерых ветеранов из моей дивизии. Все говорили: если дети устроили мне такой праздник — значит, я воспитала их нормальными людьми.

Мой зять Дмит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Зыбин — русский, очень хорошо ко мне относится, он любит свою семью и считает, что его жена — моя дочь — самая красивая корейка на свете. Мой внук тоже учится в медицинском институте. Так что у нас семья потомственных врачей. Четыре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2000.

№ 12.
(Из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авторы Д.В.Шин, Б.Д.Пак, В.В.Цой)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может посетить РК в начале мая

РК и Япония проводят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у возможного визита японско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Фумио Кисиды в Сеул 7-8 мая. Об этом сообщают японские СМИ Киодо Цусин и NHK, ссылаясь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японского премьера, сделанное 1 мая на встреч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в Гане, куда он накануне прибыл с визитом. По его словам, возможная поездка в Сеул станет хорошим поводом для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ускорения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коротечно меняющейся ситуации в мир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будет затронут вопрос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Пхеньяна, расширени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в целях сдержив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ызывает вопрос о том, принесёт ли Фумио Кисида извинения по поводу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Сеуле прошли масштабные акции трудящихся

В центре Сеула прошли масштабные демонстрации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1 мая Всемирного дня труд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к мероприятиям привлечены порядка 30 тыс. человек. Акц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федерацией корейских профсоюзов, проходит в столичном районе Ёндынпхо-гу. Собравшиеся призыва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высить размер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труда, не допустить принятие 69-часовой рабочей недели и прекратить пересмотр Закона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несчастные случа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Другая акция организована корейской конфедерацией профсоюзов в районе столичной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Митингующие собрались, чтобы выразить недовольство в отношении политики властей в сфере труда, а также сообщить о планах провести в июле всеобщую забастовку. Органы полиции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ли за соблюдением правопорядка в местах проведения массовых акций.

В РК вырос объём продаж туристических и транспортных услуг

Объём торговых операций в сфере туристических и транспортных услуг в РК составил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5 трлн 513,5 млрд вон (4,1 млрд долларов). Текущий показатель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ырос на 111,7%, сообщает националь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страны. Эксперты объясняют увеличе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отменой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в помещениях и на транспорте, приведшей к активиз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то же время объём продаж сервисов по доставке еды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сократился на 10,8%, составив 6 трлн 367 млрд вон (4,7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казало влияние на общий объём торговых операций в сфере онлайн-покупок. По итогам марта он вырос лишь на 7%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за прошлый год.

Новый слоган Сеула - «Seoul, my soul»

Мэрия Сеула утвердила новый слога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 «Seoul, my soul». В результате голосования,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жители Сеула, данный вариант набрал 63,1% голос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вариант «Seoul for you» (36,9%). Работа с населением по выбору нового бренда столицы велась с 28 декабря по 16 апреля. Между тем, слоган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в рамках дрон-шоу,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в парке на реке Ханган 29 апреля и 1 мая в парке Туксом в 8 часов вечера. Дрон-шоу пройдет также 5 и 6 мая. Прежним слоганом Сеула при бывшем мэре Ли Мён Баке был вариант «Hi Seoul», к которому позже при О Сэ Хуне была добавлена приписка «Soul of Asia». В 2015 году бывший мэр Пак Вон Сун сменил слоган на «I·SEOUL·U».

Сериал «Выкуп» получил приз Кан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антиутопия «Выкуп» удостоен приза за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Best Screenplay) на Шес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сериалов. Режиссёр Чон У Сон выразил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жюри з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его работы. Он написал сценарий сериала совместно с Чхве Бён Юном и Квак Чэ Мином. Премьера сериала состоялась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канале TvNing.

Права на показ фильма Bear Man купили 50 стран

Нов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едия Bear Man (웅남이) в главной роли с Пак Сон Уном заняла во Вьетнаме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кассовым сборам на третий день после премьеры 21 апрел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CJ ENM,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ь контента за рубежом. В фильм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человеке по имени Ун Нам, противостоящ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полагаясь на свои сверхспособности. 7 апреля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состоялась на Тайване. Права на показ киноленты выкупили 50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Таиланд, Индонезия, Гонконг и другие. (RKI)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узов обсудили в Москве особенности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28-29 апреля 2023 г. в Институте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МГУ (Москва) состоялся X Всероссийски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ОПКЯРУ (объединен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осси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о всей России.

«Особенности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и нефилологиче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 так была обозначена тема семинара.

Организаторы семинара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М.В.Ломоносова и Объединен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осси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ообщили, что главная цель семинара – обмен опытом в области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узов.

Популярность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во всем мир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более 1500 вузов во всем мире, где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орееведов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5 университетов).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ИСАА МГУ по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 и. н. А.Г. Фесюн отметил важную роль зн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Это оруд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добыва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Поздравляя с открытием семинара зав. кафедры филологии стран ЮВА, Кореи и Монголии, к.ф.н. Е. С. Кукушкина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метил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еведов, любовь к своему делу и преданность.

Сахалин на семинаре представили педагог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неева Инна, Лим Эльвира. Они выступили с докладом на тему: «Подготовка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храняя традиции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который вызвал несомненный интерес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Декан перевод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холокова Екатерина Анатольевна, выступая с докладом, особо отметила уникальный тандем педагогов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СахГУ 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К сожалению, таких практик тес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 Юбилейная встреч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еведов в Ин-



ституте Азии и Африки МГУ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была очень яркой и насыщенной интересными докладами. Было приятно встретить молодых корееведов, которые вперв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еминаре. Очный формат встреч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ивает как важно для нас общение, –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филолог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По окончании семинара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были вручены сертификаты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не пер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апреле,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и наш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еведы.

13-15 апреля в Иркутске прошли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 2023.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а, культура». На них также съехались корееведы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ГУ Инна Че и Карина Де.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ГУ)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открылась уник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Сотрудница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сторик и этнограф Юлия Дин стала куратором уник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 «Потомки Кукулькана: культуры Доколумбовой Мезоамерики». Эта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а цивилизации Древней Мексики и культурам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и развивались на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вплоть до испанского вторжения в XVI в. Речь идет о майя, ацтеках, ольмеках и сапотехах.

Эта работа по данной теме для Ю. Дин не первая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овел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Юрию Валентиновичу Кнорозову (1922–1999). Это необычный человек. Советский и российский историк, эпиграфист, известный во всем мире как дешифровщик письменности майя, которую он совершил в 1950-е гг. В 1970 – 1980-е гг., уж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тал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ым ученым, увлекся и стал активно заниматься изучением коренного народ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айнами. Его главной гипотезой стало предположение о том, что древнее население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родственно индейцам доколумбовой Америки, ведь заселение человеком этого континента шло через Берингию – сухопутного моста на месте современного Берингова пролива.

В ходе девяти экспедици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Ю.В. Кнорозова ему очень активно помогали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Поэтому руководство музея не могло обойти важную дату прошлого года – 100-летие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знаменитого ученого, юбилей, празднование которого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президентским указом от 1 июля 2022 г. Сахалинский музей провел знач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этому событию – выставку «Юрий Валентинович Кнорозов: гени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майя и айнов»,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ую конференцию «Третьи краеведческие чтения», ряд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лекций.

Сейчас в музее экспонируется выставка «Потомки Кукулькана: культуры Доколумбовой Мезоамерики», на



которой выставляются уникальные предметы – реплики музейных экспонатов мексиканских музеев, в свое время подаренных Мезоамериканскому центру им. Ю.В. Кнорозова РГГУ (Москва) при посредничестве посла Мексики в России. Предметы искусства и быта показывают наследие майя, ольмеков, сапотехов, миштеков, ацтеков, их 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 праздники, легенды о героях и богах, жрецах и правителях, жизни мужчин, женщин и детей, обереги и золотые украшения. Экспонаты, которые увидят посетители, принадлежат Музейному центру РГГУ (Москва) и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момента никогда не покидали его стен. Сбор этих уникальных коллекций стал возможен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школы майянистики, основанной великим советским и российским ученым, дешифровщиком письменности майя, Ю.В. Кнорозовым.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на уникальную выставку, посвященную потомкам Кукулькана.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июля месяца.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алинским краеведческим музеем)

Новое отделение поликлиники избавит жителей села Дальнее от долгих поездок к врачам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тделения поликлиники № 2 в селе Дальнее, входящем в соста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е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этого объект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в 2019 году. Один из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населением пожаловался ему на проблемы с медицинским обслуживанием. Растущее село, где живут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служивает амбулатория, расположенная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ом помещении. Чтобы попасть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и пройти медицинск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приходится ехать в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йчас решени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оплощается в жизнь.

Объект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Дальнем строится за счет федеральных и областных средств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Здание будет трехэтажным. На первом разместятся отделения: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ое,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го лечения, а также помещение для забора анализов. Второй этаж – стоматология, отде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кабинеты терапевта, офтальмолога, отоларинголога, гинеколога, невролога, хирурга, уролога, доврачебный,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омещения.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будет оборудован дневной стационар, включающий в себя процедурный кабинет, мужскую и женскую палаты на четыре койки каждая. Кроме этого,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омещения для техниче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вод в строй объекта намечен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 Отделение поликлиники № 2, которое строится в селе Дальнее, рассчитано на 12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Оно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о узк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Сегодня жителю села надо совершить две поездки, чтобы с помощь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добраться до центра города и попасть к участковому врачу. Ввод объекта в строй позволит решить эту важную социальную проблему. Жители села Дальнее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медицинскими услугами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Поэтому перед подрядчиком и ведомствами, курирующими стройку,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сдать объект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Люди очень ждут, когда заработает новое отделение поликлиники,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Работы на площадке работ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Строители выполнили обустройство цокольного этажа, смонтировали опалубку стен и перекрытия первого этажа, ведут бетонные работы.

– В новом здании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ся первичная медико-санитарная помощь, неотложная помощь,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населения. В штат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и уз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лл-центра 1300, а такж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поликлинике,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а Салахутдинова.

Жители села Дальне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ждут начала работы поликлиники.

– Мы рады, что началась стройка. У нас есть амбулатория. Но она небольшая.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ней нет. Поэтому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когда появится полноценная поликлиника, просторная, современная и с необходимыми узк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 поделилась Екатерина Сторожко, учитель местной школы.

Подобное мнение высказали и жительницы Дальнего, пенсионерки Галина Ивановна и Людмила Николаевна.

– Замучались ездить в город, за тридевять земель. А так поликлиника будет под боком. Надеемся, что будет лучше. В общем, мы рады, что сможем приходить на прием недалеко от дома и получа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помощь, – выразили женщины свое общее мнен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еде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Новые ФАПы появятся в селах: Лесогорское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Восточно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Сосновк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воева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ярмарке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яти дней 25 северных, сибирских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а ВДНХ лучший опыт и мастерство в области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В главной номинации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ы «Лучш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спозиция» стенд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 Традиции. Гармония. Будущее»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бильно входит в число лучших экспонентов «Сокровищ Севера». В этом году экспози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миру северной женщины, заслужил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жюри. Здесь ярко показаны природ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островов и связанные с ними традиционные виды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о современная женщина умеет сочетать традиции и

настоящее, тем самым создавая прочную основу для будущего. И сахалинцы смогли это наглядно это показать»,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результаты председатель экспертной комиссии Олеся Болотаева.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 мероприятие ежегодное. В 2023 году Москва принимает выставку уже в 18-й раз. Можно сказать, это творческий вызов региональным командам – показать уникальность своего субъекта так, чтобы это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посетителям, организаторам и участникам выставки. Сложно это сделать один раз, но доказывать свое лидерство из года в год намного сложнее. Мы высоко ценим оценку жюри и благодарим партнеров и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команды за творческую синергию»,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корпора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и» Наталья Гончар.

Копилку наград делег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3 году также пополнили достижения в следующ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окровищ Севера»:

– фестиваль «Полярный стиль» –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сценический костюм», коллекция «Этнический остров», авторы Ольга Садинов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Елена Садинова (пгт Ноглики);

– кон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хня» – первое место, грамота за лучший продукт 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лучшую адаптацию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в современную гастрономию от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лоу Фуд в России», Светлана Белова (пгт Ноглики);

– конкурс «Лучш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ыкальный инструмент», Вадим Левкун (пгт Ноглики);

– конкурс музыкально-песенного и танцеваль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Фестиваль «Кочевье Севера» – втор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Театраль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арод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Мэнгумэ Илга» («Серебряные узоры») (г. Поронайск);

– конкурс «Лучш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втор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обработка бересты», Юлия Иванова (с. Чир-Унвд,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 конкурс «Лучш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втор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Текстиль, войлок, вышивка», Евгения Окава (г. Поронайск);

– конкурс «Лучш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треть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Возрождение утраченных традиций», Татьяна Шкалыгина и Виктор Мельников (с. Чир-Унвд,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 фотоконкурс «Северный взор 2023» – треть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Северный колорит», Федор Мыгу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фотографии «Рыбалка неводом на закате», «Зов предков на рассвете», «Увлечены выступлением артистов»;

– конкурс «Лучш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в номинации «Изделия сувенирного промыс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и национальный сувенир), Наталья Тихонова (г. Поронайск);

– конкурс «Лучш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в номин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текстиль)», Альбина Мыгун, Алла Козлова, Елена Очан (с. Некрасовка, Охинский район).

«Мы готовились к этой выставк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а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объединившая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и ресурсы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орон», – подчеркнула главный советник отдела КМНС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Кутайбергей.

«Самое главное – это командная работ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этапов: от планирования до работы на стенде. Выставочная программа крайне насыщенная, поэтому очень важно видеть общую картину и быть готовым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ключиться и поддержать коллег», – 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ом культуры КМНС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алина Саменк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поездки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ыступ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ествовали сотрудников Гостехнадзора

В честь 65-летия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службы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15 сотрудников и трудовой коллекти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нспекции по надзору за техническим состоянием самоходных машин и других видов тех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ы решаете важн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задачу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адежности эксплуатац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и. От ваше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опыт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зависит бесперебойная работа машин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безопасность людей. Желаю ва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спехов,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и благополучия, – обратилась к сотрудникам Гостехнадзор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на Федорищева.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было зачитано поздравление от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Дми-

трия Патрушева. Он поблагодарил сахал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преданность своему делу и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остехнадз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оказано свыше 14 тысяч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Среди основных задач службы – увеличение срока эксплуатации машин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значительное повышение надежности их работы.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находятся качество техники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ервис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За многолетний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а получили глав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нженеры-инспекторы Гостехнадзора Сергей Глотков (Томаринский и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ы), Константин Хрыкин (Поронайский и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ы) и Владимир Чемодур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градили гла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женеров-инспекторов Гостехнадзора Юрия Бикбаева (Ногликский и Охинский районы) и Алексея Обыденнова (Тымовский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облдумы вручили руководителю Гостехнадз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у Гниденко, заместителю руководителя Василию Односторонцеву и главно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инженеру-инспектор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рию Фатееву.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Гостехнадз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ощрили гла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женеров-инспекторов Андрея Вторуш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Эдуарда Земницкого (Анивский и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ы), Сергея Карпцева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Курильский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ы), Геннадия Кержакова (Холмский и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ы), Дмитрий Таратут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 также советника Гостехнадз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дора Шашкова и ведущего советника Сергея Жолнина.

4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екта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перв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для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стоялось 28 апреля в Магадан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Ирек Файзуллин. Всег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ла шесть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олмске, До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Макарове, Курильске. Сразу 4 из них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т 500 млн рублей.

В Курильске благоустроят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на улице 60 лет Октября и пешеходную лестницу. Вдоль всей протяженности лестницы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а архитектурная подсветка, а на скл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садить морской шиповник. Там появятся зоны отдыха, скамьи, вазоны, качели, бинокль.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Янтарный парк» в Долинске станет рекреацион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ной к природной. А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 айские орнаменты, русские и восточные мотивы – отразят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сть города.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может найти себе площадку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времяпровождения: спокойного или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игр с детьми или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Сквер на улице Краснофлотской в Корсакове оформят газонами, тротуар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с зоной отдыха в виде поднятого настила, исполненного в дереве хвойных пород. Центр композиции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зданием кафе и перголой (навесом) ломаной формы. Объекты выполнят в современном архитектурном стиле со встроенной подсветкой, а в газонные островки будут встроены стильные скамьи.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завершат второй этап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Рогатки. Там появятся пешеходный мост, амфитеатр и навес, пешеходные и велодорожки, много зелени. Пространство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отделить места спокойного отдыха от основных пешеходных и велосипедных маршрутов.

– Победа в конкурс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того, что работа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которая ведется на островах, – это важная и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для людей.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арков и скверов проводи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досуга и отдыха людей,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ранее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голосованию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ыбор территорий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ынесен 41 проек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стигшие 14-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могут уже сейчас на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е: <https://65.gorodstreda.ru/>. Проголосовать можно до 31 мая через подтвержденную запись на Госуслуг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3년, 사할린 기업가 지원금으로 30억 루블리 배당

사할린 기업가들은 2022년에 전년 대비 17%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 중소기업은 총 16억 루블리를 대출했으며, 이 중 5억 루블리는 4% 할인된 이율의 우대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농업인 및 기타 실물 경제 기업들은 10억 루블리의 개발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정부가 전했다.

2024년까지 사할린 주민들은 고용 촉진 프로젝트와 국가 중소기업 및 개인 창업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교육을 받고 사업가로 합류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이들을 위해 42회의 무료 교육 강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초, "자영업자 클럽"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이곳에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적절한 역할을 구축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회사 제품의 전문 사진 촬영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3년 1월 이후 클럽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800명의 신규 회원들이 추가되었다.

지난 2월에는 '기업가 정신의 기본' 8번째 시즌의 일환으로 5일 연속으로 진행되는 기업가 집중 교육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대해 동료들과 토론할 수 있었다.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는 출산 휴가 중인 여성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 7회 사할린 여성 기업가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온갖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언급하자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실제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샤희츠크에 거주하는 아르쉴 브린은 '사회적 계약'에 따라 35만 루블리를 받아 아틀리에를 시작했다. 실직 상태였던 그는 <정부 서비스>에 창업 계획을 제출하고 약속서에 서명한 후 일을 시작했다. 지원받은 자금은 장비

와 자재를 구입하기에 충분했고,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는 여유롭게 일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국가 프로젝트인 "제모그래피아"를 통해 노워알렉산드롭스크에 거주하는 세 아이의 어머니가 벨라루스 화장품 가게를 열었다. 예카테리나 치나코와에게 주에서 받은 192,000 루블리가 창업 자금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2019년부터 2,500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제모그래피아"프로젝트는 이제 커다란 규모로 발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700건의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분야도 있다. 이러한 기업의 대표는 최대 50만 루블리의 보조금 또는 연 4%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의 구체적인 조치는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 수준에 따라 직접적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면, 특정 범주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고 필수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3년 3월에 사할린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률을 크게 낮추는 활동을 하는 500개 기업에 대한 보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다른 효과적인 해결책으로는 농부들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헥타르 사면'과 10년 우대 대출(제조업, 호텔, 요식업, 과학 및 기술 조직에 적용됨)이 있다.

쿠릴열도의 13개 신규 사업체는 20년간 수익, 재산, 토지 및 운송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총 40여 가지의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원책으로는 개인 농장 지원 보조금, 극동 대출, 가족 농장 개발 보조금, 실직자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때 지급하는 일회성 재정 지원, 창업 기업가에게 지급하는 창업 보조금 등이 있다.

세계한인언론인들 '영덕에 반하다'

풍요로움 가득한 대계의 고장 '영덕' 먹거리, 볼거리에 후덕한 인심은 '덤'

전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한인언론인들이 대계의 고장 영덕에서 넉넉한 인심을 경험했다.

경상북도 영덕군이 26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 이하 세언협)를 초청해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영덕을 적극 알렸다.



자성어를 사용했다. 미리 대비책을 짜 놓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그 세계의 굴을 파는데, 재외언론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답사를 전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영덕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창포말 등대, 해파랑 공원, 강구대계공원, 장사상륙작전기념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에서는 영덕풍력발전단지를 소개했다. 하늘을 향해 장엄하게 솟아 있는 풍력발전기를 통해 연간 연 1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한국 내 최초의 상업용 풍력발전단지이다.

창포말 등대는 빼어난 경관과 탁트인 바다 풍경이 인상적이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인근에서 뮤직 비디오를 촬영해 더욱 유명해졌다.

이전의 투어가 관광지 중심이었다면 장사상륙작전기념관은 세언협 회원들을 숙연하게 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학도병으로 이루어진 어린 영웅들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다. 세언협 회원들은 기념관과 기념비 등을 돌며 당시의 참혹했던 현장에서 잊혀져 가는 아픈 역사를 되새겼다.

한편, 세언협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제22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 및 제13회 세계언론인심포지움을 개최했다. 25일 오후부터 청송군을 시작으로 영덕군, 포항 등을 방문한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 28일 해산하는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한국(영덕)=세언협공동취재단】 글 김판겸 기자 / 사진 손정호 기자 외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가능

4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소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는 본인확인 및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민 1세대)이나 그

자녀(이민 2~3세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정됐으며 대국민 공모(2.9.~3.2.)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통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한국어 배우며 정체성 키워요"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대회

강성철 기자 =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나 느낌·배운 점 등을 표현하는 '2023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현지화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 정체성 함양을 돕자는 취지다.

재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해 만 12세 이하로 해외 거주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5세 미만이면 해외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하려면 사이트(www.ikef.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원본(A3 용지 크기)과 함께 5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주제 표현 등 내용의 적합성, 표현력, 창의성, 완성도 등을 심사해 7월 21일까지 20명의 예선 입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입상자는 보호자 1인 동반으로 10월 본선 대회 참가 및 한국 역사문화체험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서울=연합뉴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사할린주 내부부 보도부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 남성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신원 미상의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말과 함께 대출금을 갚으려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녀의 말을 믿고 단말기를 통해 알 수 없는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야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перевел мошенникам почти 1 млн рублей

Житель Поронайска обратился в полицию после общения с мошенниками. Они убедили мужчину взять кредит и перевести деньги на посторонний счет.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сахалинцу позвонила неизвестная под видом сотрудницы банка и предупредила, что на его имя, якобы, взяли кредит. Чтобы его закрыть, она предложила перевести деньги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Потерпевший поверил, и через терминал перевел деньги на неизвестный счет.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мужчина понял, что оказался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사할린 주민, 복권에서 백만 루블 이상 당첨

2023년 3월 21일, 국가 복권 "대결"의 218303회 추첨에서 1,150,000루블리의 상금 당첨자가 결정되었다. 당첨자는 사할린 지역의 마리아 라판스카야였다.

운명의 추첨이 있는 지 한 달 후, 마리아는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복권 센터를 방문하여 행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첨자에 따르면 복권에 참여하는 전통을 시작한 것은 그

녀의 부모님이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종종 각자 복권을 구매하여 휴일에 서로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즉흥적으로 복권을 샀다. 숫자는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아침이 되어서야 당첨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사할린 시간으로는 한밤중에 추첨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흥분해서 하루 종일 웃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느낌이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마리아의 직업은 변호사이다. 이 당첨자는 여가 시간에는 아시아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그녀는 당첨된 돈을 대출금 상환금으로 따로 보관할 것이라고 한다.

Жительница Сахалина выиграла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лотерею

21 марта 2023 года в 218303-м тираж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лотереи «Дуэль» был разыгран суперприз — 1 150 000 рублей.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стала жительниц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рия Лапанская.

Спустя месяц после судьбоносного тиража Мария приехала на оформление выигрыша в московский лотерейный центр и поделилась историей своей удачи.

По словам победительницы, традицию участия в лотерейных розыгрышах начали ее родители. Домочадцы часто сами приобретают билеты и дарят их друг другу по праздникам.

«Билет я купила спонтанно перед сном. Числа выбрала случайные. Сообщение о выигрыше я увидела только утром: розыгрыш проходил, когда у нас уже была ночь. Из-за нахлынувших эмоций улыбка не сходила с лица весь день, — рассказала Мария. — Если честно, в глубине души я знала, что выиграю в лотерею, хотя удачливой себя никогда не считала. Не могу это объяснить, просто внутреннее предчувствие».

Мария по профессии юрист. В свободное от работы время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любит готовить блюда азиатской кухни. Выигранные деньги женщина отложит в качестве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по ипотек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한국 김포에 계시는 안춘대 선생님께 드리는 축하문

80회 생신을 맞으시는 안춘대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고려신문사에서 근 37여 년간 기자, 상급기자, 과장, 사장을 역임하셨고, 특히 신문사 사장이 가장 안 좋은 때인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기에 사장으로서는 한민족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자세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신문에 대한 안춘대 선생님의 애정과 헌신에 늘 고마워하고 있으며,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뒷받침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조국에서 지내시면서도 우리 신문을 잊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덕담도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며, 한민족지가 잘 발행되도록 항상 지켜주셔서 우리 신문사는 든든히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귀감이 되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자녀와 손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며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귀중한 동창생 안춘대!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강과 행복, 기쁨을 축원합니다.

1963년 사할린 사범학교 조선과 졸업생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